

# 幸福의 經濟學: 새로운 地平

李 正 典

지난 반세기 선진국 국민의 所得水準은 엄청나게 높아졌으나 이들의 幸福指數는 별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수많은 조사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남에 따라 “幸福의 逆說”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행복의 원천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돈으로 사기 어려운 것이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원천은 대체로 수확체감의 경향을 보이는 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은 수확체증의 경향을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수준의 향상 덕분에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국민들이 물리도록 누리다 보니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소득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적응 및 포부메커니즘을 핵심으로 하는 디딜방아 이론이다. 이 이론을 비롯하여 행복에 대한 여러 이론들은 행복에 대한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幸福에 대한 연구가 봇물을 이루었다. 이런 연구들의 대부분은 자연과학자들이 주도하였다. 인간의 감정세계에 관한 이들의 과학적 탐구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행복이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라고 믿고 있다. 이제 경제학자들도 이들이 이룩한 성과를 받아들여 경제학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

## 1. 머리말

2005년 6월 『經濟論集』에 실린 이준구 교수의 논문, “幸福의 經濟學: 政策的 含意”는 많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행복의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 보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經濟學의 사상적 뿌리는 功利主義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상이다. 경제학의 주된 연구대상인 재화나 소득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정당성이 무너진다. 古典學派 경제학자들은 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Pareto 이후 경제학에서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 정서적 냄새가 덜 풍기는 용어들, 예컨대 福祉, 效用, 滿足 등이 사용되면서 마치 경제학은 행복을 다루는 학문이 아닌 것처럼 바뀌었다. 행복은 너무 주관적이고 감정적이어서 과학으로서 경제학이 다룰 수도 없고 다룰 필요도 없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입장이 되었다. 소득과 소비가 늘어

나면 행복은 자동적으로 증진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득과 소비를 잘 증대시킬 것인가 만을 연구하면 그만이라는 고정관념이 많은 경제학자들을 지배하여 왔다. 이준구 교수가 자세히 소개한 ‘幸福의 逆說’은 바로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幸福과 所得에 관한 조사자료가 꾸준히 축적되었고 이 자료들은 경제학 밖의 학자들에게 좋은 연구 소재가 되었다. 幸福, 福祉, 所得, 이 모두가 경제학의 본령에 속하는 핵심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역설을 공식적으로 다룬 최초의 학술적 논문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인 Brickman과 Campbell이 1971년에 발표한 논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sup> 지난 반세기 행복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자, 두뇌과학자, 신경과학자 등 자연과학자들이 주도하였다. 자연과학자들의 연구논문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가운데 오직 극소수의 경제학자들만 이들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행복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의 발판으로 삼았다. 남가주대학교의 R.A. Easterlin, 스탠포드대학교의 T. Scitovsky, 네델란드의 van Praag 등이 바로 그런 선구자들이다. Easterlin은 2002년에 발간한 책에서 경제학자들은 총 한 번 제대로 쏘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한 중요한 영역을 다른 학문분야의 학자들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개탄한 바 있다[Easterlin(2002)].

Easterlin의 이 개탄이 옳다면, 이준구 교수의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에게 행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경제학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분량이 제한된 짧은 논문에 지난 반세기에 걸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 행복관련 연구들을 정리하여 균형 있게 소개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다 보니 행복의 경제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론들의 내용과 취지에 대한 소개가 불충분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논문이 자칫 幸福의 經濟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그 취지가 잘못 전달될 우려가 없지 않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교수의 논문을 보충함으로써 행복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서 이 방면의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다.

## 2. 幸福의 逆說

### 2.1. 幸福指數와 經濟的 福祉

지난 반세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지속적 經濟成長 덕분에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려 왔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미국의 경우 1인당 소득이 3배 정도 늘어났고 일본의 경

(1) 논문의 제목은 “Hedonic Relativism and Planning the Good Society”이었음. 다음 문헌 참조: Bruni and Porta(2005).

우에는 7배 정도 늘어났다. 소득수준이 이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굳게 믿고 있듯이 “多多益善”이라면 당연히 선진국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해 하는 사람의 수도 크게 늘어났어야 한다. 하지만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자연히 많은 학자들이 이 의외의 현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현상이 여러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자 드디어 심리학자를 비롯한 자연과학자들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그들 나름의 과학적 방법으로 幸福指數를 개발하고 이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유한 先進國의 경우 所得水準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국민의 幸福指數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여러 가지 행복지수를 적용해 보아도 이런 결과가 일관성있게 나타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幸福의 逆說”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런 일련의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 핵심변수는 幸福指數다. 이 행복지수는 주로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지표로서 행복감을 계량화한 것이거나 행복을 표명한 사람의 비율이다. 선진국에서 소득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행복의 역설”의 핵심 내용이다. 이준구 교수도 인정하였듯이 이 행복지수는 經濟的 福祉와 다른 개념이다. 경제적 복지는 “物質的 측면에서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복지”라고 그는 정의하면서 보통 말하는 행복감은 “생활의 物質的 측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나 친구관계, 건강, 심리상태, 나아가서 정치적, 사회적 여건 같은 非物質的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幸福感의 정도와 經濟的 福祉의 수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이준구(2005, p. 140)].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적 복지의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풀이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복감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소득이라는 물질적 요인이 이런 비물질적 요인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asterlin의 연구는 幸福指數와 經濟的 福祉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는 이교수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Easterlin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은 건강이고 그 다음이 경제적 안정이며 이어서 가족관계와 친구가 꼽힌다. 행복을 결정하는 이 4가지 요인들 중에서 건강은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 국민의 평균수명이 크게 높아졌다. 행복을 결정하는 나머지 요인들도 소득수준의 영향권 안에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가족 간의 화목도 기대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좋은 인간관계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표면상 행복을 결정하는 4대 요인

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所得水準이 행복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복감의 정도와 경제적 복지를 같은 것으로 보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Easterlin이 놀랍게 생각한 것은 幸福의 概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국경, 인종, 종교를 초월해서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그저 건강하고, 먹고 사는 데 큰 걱정 없고, 가족 화목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면, 그것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에는 동양이나 서양, 부자나라나 가난한 나라, 기독교국가, 불교국가, 유교국가, 이슬람국가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와 같이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은 행복에 대한 연구에 큰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Easterlin의 연구도 옛날 얘기가 되었다. 앞서 가는 학자들의 연구가 늘 그렇듯이 그의 연구도 후에 큰 비판을 받게 된다. 이준구 교수가 정리한 Easterlin의 세 가지 주장 중에서 우선 첫 번째 주장, 즉 幸福은 所得順이라는 주장(행복이 소득에 비례한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온다. 후진국에서는 행복이 소득순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부유한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所得水準이 높아지면 幸福指數도 높아지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 학자들이 그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략 \$15,000~16,000이 分岐點이었다. 이 분기점까지는 소득수준과 행복감이 같이 움직이다가 분기점을 넘어서면서부터 소득수준과 행복감이 갈라지면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분기점을 訣別點(decoupling poi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득수준이 이 결별점보다 낮을 때에는 Easterlin의 첫 번째 주장이 성립하지만, 결별점보다 높아지면서부터 행복의 역설이 시작된다. 자본주의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 결별점을 훨씬 뛰어넘었고 대부분의 후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결별점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러므로 국민의 행복을 얘기할 때는 先進國과 後進國을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幸福의 逆說은 선진국에 해당하는 얘기이다. 우리가 행복의 역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경우 우리 국민의 신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 2.2. 幸福의 決定要因

선진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심리학자들이 각 개인의 행복지수를 일생에 걸쳐 추적해 본 연구들도 행복은 소득순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개인별로 행복지수가 일생에 걸쳐 거의 일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발견을 바탕으로 소위 固定點理論(Set-point Theory)이 등장한다. 특히 심리학자들 중에 이 이론을 신봉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 같다. 이 이론에 의하면, 행복지수가 인생 초기에 비해 중년기에 아주 약간 낮아졌다가 노년기에 다시 아주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즉 거의 수평선에 가까운 반

반한 U자형 곡선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고정점 이론에 대해서도 많은 반증이 제시된다. 예를 들면, 결혼하면 개인의 행복지수가 크게 높아졌다가 2, 3년 후 다시 내려앉기는 하지만, 결혼 전보다 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 즉, 結婚은 당사자의 행복지수를 영속적으로 높인다. 離婚은 당사자, 특히 여성의 행복지수를 영속적으로 낮춘다. 그래서 고정점 이론을 신봉하는 학자들도 결혼과 이혼만을 예외로 인정한다. 그러나 所得水準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소득수준은 개인의 행복에 지속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그 기쁨은 일시적으로 반짝할 뿐 행복감은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부유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제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는 소득수준의 향상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감소한다. 달리 말하면, 물질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여러 조사결과들이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세계 46개국을 상대로 1981년 이래 4차에 걸쳐 실시된 世界價値調査(World Value Survey) 결과를 보면, 家族關係가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Layard(2005, chapter 5)]. 미국의 일반사회조사 결과에 나타난 “幸福에 영향을 주는 5대 요인”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家族關係, ② 財政狀態, ③ 일(work), ④ 共同體(community)와 親舊, ⑤ 健康[Layard(2005, pp. 62-65)].

이 다섯 가지를 행복 결정의 “Big Five”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가 첫 번째로 꼽힌다.<sup>(2)</sup> 건강이 마지막으로 꼽히는 이유는 아마도 선진국 국민 대부분 이미 상당한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을 국민의 건강에 대한 대리변수로 보았을 때, 所得水準의 향상에 따라 平均壽命이 급속하게 늘어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국민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일종의 결별점이 존재한다. 1970년과 1990년 사이에 OECD의 23개 국가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득수준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Frank(1999, p. 143)]. 경제문제가 두 번째로 밀려난 이유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해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행복을 결정하는 Big Five 중에서 첫 번째(가족관계)와 네 번째(공동체와 친구)는 결국 人間關係에 관한 것이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선진국의 경우 경제적인 것보다는

(2) 이 다섯 가지와 함께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가치(개인의 성격)를 합쳐서 레이야드 교수는 “Big Seven”이라고 불렀다. 일반사회조사는 제1장에서 소개하였듯이 미국 시카고대학 NORC가 수행한 조사이다. 다음 문헌 참조: Layard(2005, p. 63).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의 주된 원천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경제적인 것보다는 인간관계가 행복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의 원천으로 健康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家族關係를 두 번째로 꼽았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 모두 돈보다는 가족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가족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sup>(3)</sup>

Big Five 중에서 세 번째인 ‘일’은 ‘勞動’이 아니라 보람 있는 활동을 의미하며, 따라서 돈과 직접적인 관계가 별로 없는 것이다. 결국 선진국의 경우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物質的 要因(건강과 경제적인 요인)의 비중이 크게 떨어지는 반면, 非物質的인 要因들의 비중이 무척 커졌다. 그렇다면, 이준구 교수의 정의대로 경제적 복지를 물질적인 요인으로 간주한다면, 이와 같이 비물질적인 요인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 지난 반세기 경제적 복지는 크게 늘어났어도 행복감은 제자리걸음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선진국 사람들이 행복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좋은 인간관계’와 ‘보람 있는 일’을 꼽는다는 사실은 소득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 2.3. 돈으로 살 수 있는 幸福과 돈으로 살 수 없는 幸福

이준구 교수가 말했듯이 幸福感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物質的인 것과 非物質的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物質的인 것들은 대체로 쉽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다. 맛있는 음식, 쾌적한 주택, 예쁜 옷, 편리한 가전제품, 노래방 등이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 반면에 非物質的인 것들은 대부분 돈으로 사기 어려운 것들이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으레 사랑, 우정, 존경, 화목한 가정, 사회적 지위 등을 꼽는데,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돈으로 사기 어렵고 따라서 市場에서 잘 거래되지 않는다. 물론, 이런 비물질적인 것들도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으로 섹스를 산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은 돈으로 산 섹스는 순수한 섹스와 차원이 다르다고 말한다. 돈으로 산 올림픽금메달이나 돈으로 산 노벨평화상은 그 본연의 가치를 잃는다. 사랑이나 우정 그리고 존경 등은 돈과 결부되는 순간 그 가치가 팍 떨어진다. 돈으로 산 사랑은 이미 사랑도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우정도 마찬가지다. 돈에 팔린 우정은 우정도 아니다. 사랑, 우정, 존경, 화목한 가정,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이 사람들이 가장 얻고 싶어 하면서도 돈으로 사기

(3) 동아일보에서도 2006년 12월 11일에 발표되었음.

어려운 것들에 한 가지 공통적인 요소는 좋은 人間關係와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幸福의 源泉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정리된다. 그 한 부류는 시장에서 거래되며 따라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시장에서 잘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사기 어려운 것들이다. 좋은 人間關係와 보람 있는 일, 명예 등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 부류에 속한 것들은 대체로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물리거나 싫증나서 즐거움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것들은 오래 소비하면 할수록 맛이 깊어지면서 즐거움이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아무리 맛있는 갈비구이도 많이 먹으면 물리고 아무리 재미있는 노래방도 오래 앉아 있으면 싫증난다. 하지만 좋은 人間關係, 예컨대 우정은 오래될수록 깊은 즐거움을 준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추억거리도 많아진다. 그런 친구는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대체로 限界效用遞減의 法則이 작용하지만, 시장에서 잘 거래되지 않는 것들은 限界效用遞增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所得水準 향상이 어느 수준 이상의 幸福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이와 같이 시장에서 돈으로 사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런 것들이 행복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반세기 소득수준의 지속적 상승 덕분에 선진국 국민은 시장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신물나게 즐겨 왔다. 그러다 보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로부터의 행복이 이미 오래 전부터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所得水準이 계속 올라가봐야 國民의 幸福指數는 별로 높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난 반세기 資本主義 先進國에서 실제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한다. 이제 선진국 국민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통상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들(물질적인 것들)의 소비를 줄이고 그 대신 시장에서 돈으로 사기 어려운 것들, 예컨대 좋은 人間關係와 보람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강력하게 권고하는 처방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문이 제기된다. 선진국 사회에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물질적인 것)으로부터의 행복이 이미 오래 전부터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에 한계에 이르르게 되었으며, 또한 그렇다면 선진국 국민은 왜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권유대로 소비양태를 바꾸지 않는가?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고 본다. 당연히 제기됨직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幸福의 經濟學'의 주요 내용이 된다. 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섰고 따라서 여러 가지

대답이 제시되고 있다. 크게 보아 그 대답은 두 가지 종류다. 그 하나는 주로 個人的 잘못을 탓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社會를 탓하는 것이다.

#### 2.4. 디딜방아 理論(treadmill theory)

個人的 잘못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사람들이 非合理的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들은 個人的 合理性을 굳게 신봉하고 있지만, 인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중에는 개인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이들은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증거를 무수히 많이 제시하고 있다. 어쨌든 행복에 관해서 개인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錯覺과 中毒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錯覺은 주로 適應에 관련된 것이다. 동물이나 인간은 나쁜 일이나 좋은 일에 적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교통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신체장애자가 된 사람들이 크게 낙담해서 몹시 불행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설문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사고로 사지를 못 쓰게 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실제로 끔직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사고 직후 얼마 동안 심한 우울증과 정신혼란을 겪는다. 그러나 많은 신체장애자들이 그런 악조건을 기대 이상 매우 빠르고 폭넓게 수용한다. 일년 정도 지나면, 많은 신체장애자들은 대체로 정상인과 비슷한 감정상태로 돌아간다. 심리학자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자들은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행복했다. 이들 대부분이 신체장애로 인한 불편을 극복함으로써 현실에 잘 적응하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에도 빠르게 적응한다는 점이다. 복권 당첨자들이 그 좋은 예가 된다. 수많은 복권당첨자들을 추적 조사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은 당첨된 후 처음 수 주일 동안은 아주 행복해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들의 대부분은 복권당첨 전과 비슷한 상태로 서서히 되돌아간다. 그래서 1년쯤 지나면 이들의 幸福指數는 비슷한 여건의 보통사람들의 행복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Frey and Stutzer(2002, Chapt. 4)]. 개중에는 전보다 더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다. 복권당첨자들이 복권당첨 전과 비슷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이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복권당첨으로 인한 여건의 큰 변화에 쉽게 적응해버린 탓으로 행복감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좋은 일에 대해서 금방 적응하는 현상은 비단 복권당첨자들뿐만 아니라 보통사람들에게도 아주 흔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연봉수준이 높아지면 얼마 동안은 기분이 좋아지기만 시간이 좀 흐르면 그런 기분도 시들해진다. 즉, 높아진 연봉수준에 금방 적응해 버린다. 어렵사리 새 자동차나 새 집을 장만하면 한두 달 정도 기분이 붕 떠



있지만, 얼마 못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들뜬 기분이 가라앉으면서 이제는 새 자동차와 새 집이 늘 있었다는 듯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새 자동차와 새 집에 금방 적응해 버린다. 이와 같이 적응해서 익숙해지는 현상을 ‘習慣化’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는데, 어떻게 적응한다는 것이나 습관화된다는 것은 즐거움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는 뜻이다.

수많은 실험의 결과 상품소비에 있어서 적응현상이 폭넓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주로 심리학자들이 소위 適應理論(adaptation theory)을 내세우게 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대상에 따라 우리가 빠르게 적응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대체로 보면 대량생산되는 상품들, 그중에서도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 예컨대 자동차, 아파트, 각종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적응한다. 따라서 이들의 소비로 인한 즐거움이 빠르게 소진된다. 그러므로 대량생산되는 상품들은 대체로 우리에게 一時的이고 얇은 즐거움만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품을 구입할 때 이 상품의 소비가 주는 즐거움이 永續적인 것처럼 착각한다. 빠르게 적응한 결과 즐거움이 一時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잊는다는 것이다. 이 결과 상품의 소비에서 期待되는 效用(expected utility)을 소비자들이 과대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상품의 限界效用이 가격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을 계속 구입한다.

인간은 단순히 적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얻은 다음에는 곧장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염원하게 된다. 방 2개 있는 집을 사면, 방 3개 있는 집을 사고 싶고, 새 자동차를 사면 좀 더 크고 멋진 자동차를 사고 싶고, 가죽 옷을 사면 밍크코트를 사고 싶고,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고 ... 이렇게 새로운 욕망이 끊임없이 부풀어 오른다. 전문용어로는 새로운 抱負(aspiration)가 형성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포부가 형성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방 3개 있는 집을 염원하고 있으면 현재 살고 있는 방 2개짜리 집에 대한 만족감이 적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포부형성은 商品의 限界效用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상품으로부터 소비자가 실제 경험하는 효용은 적응으로 인해서 일차 감소하고 포부형성으로 다시 감소한다. 그러나 대체로 소비자들은 실제 經驗되는 效用(experienced utility)이 이와 같이 두 가지 요인의 복합적 작용 때문에 감소한다는 사실을 잘 의식하지 못한다. 즉, 일종의 착각상태에서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抱負形成은 일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다만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할 뿐이다. 이에 대하여 실증 분석한 연구도 많이 있다. “바람직한 생활”에 관하여 1978년부터 1994년 사이 16년에 걸쳐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가진 것'이 늘어나면 '가지고 싶은 것'도 비례해서 늘어난다. 즉, '가진 것'이 늘어나는 비율과 '가지고 싶은 것'이 늘어나는 비율이 대체로 같다는 것이다.<sup>(4)</sup> 商品뿐만 아니라 所得에 관하여 抱負形成을 다룬 연구도 있는데,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이에 거의 정비례해서 바람직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sup>(5)</sup> '실제 소득수준'의 변화율과 '원하는 소득수준'의 변화율이 거의 같아진다. 즉, 彈力性이 1에 가깝다.

포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포부의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에 의하면, 現實과 抱負 사이의 격차가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무리 소득수준이 높아도 포부의 수준이 이를 크게 초과하면 현재의 소득에 대한 불만도 그만큼 클 것이므로 행복지수는 낮은 반면, 아무리 소득수준이 낮아도 포부의 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현재의 소득에 대한 불만이 적으므로 행복지수도 높을 것이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불만도 많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 행복하지 못하다.

개념상으로는 適應과 抱負形成이 구분되지만, 전문가들의 실증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잘 분리되지 않았다[Frey and Stutzer(2002, Chapt. 4)]. 그렇다면, 적응과 포부형성이 뒤엉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크게 올랐다고 하자. 그러면 일단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은 연봉에 적응하면서 행복감은 가라앉는다. 이와 동시에 소득에 대한 새로운 포부가 형성되면서 행복감은 또 다시 가라앉는다. 이 결과 행복지수는 연봉 인상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한다. 그러다가 또 다시 연봉이 올라가면, 행복지수는 올라갔다가 시일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복귀한다. 소득이 매번 증가할 때마다 행복감은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마치 디딜방아의 발판을 아무리 밟아봐야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적응 및 포부형성으로 인해서 행복감이 원래의 수준으로 계속 되돌아가는 현상을 디딜방아(treadmill) 效果라고 부르며, 적응 및 포부형성에 대한 이론을 디딜방아 理論(treadmill theor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2.5. 中毒性和 非合理的 行動

심리학자들이 광범위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디딜방아 효과를 확인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적지 않은 보통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디딜방아 효과를 깨닫거나 몸으로 느끼고 세속적인 삶을 떠나 차원 높은 행복을 추구한다. 창작 활동이나 학술 활동 혹은 사회봉사

(4) Easterlin(2005).

(5) 다음 문헌에서 인용한 것임: Easterlin(2005).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금전을 초월하여 보람있는 활동에서 행복을 찾는다. 하지만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들은 돈벌이나 물질적 소비와 같이 열고 일시적인 행복밖에 주지 못하는 활동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 왜 그런가? 錯覺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령 착각임을 깨닫는다고 해도 그런 생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中毒性'이라는 큰 걸림돌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마약을 예로 들어보자. 마약복용은 처음에는 큰 쾌감을 가져오지만 마약복용이 습관화 되면 쾌감은 점점 줄어들다가 드디어 없어진다고 한다. 즉, 限界效用이 遞減한다.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이와 같이 쾌감이 추가되지 않을 때에는 마약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마약중독자는 마약을 끊지 못한다. 더 이상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데도 마약을 계속 복용하는 이유는 禁斷症狀 때문이다. 마약복용을 중단하면 큰 고통이 온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온몸이 뒤틀린다. 이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마약을 복용하게 된다. 알코올중독도 마찬가지다. 알코올중독자가 술을 끊으면 손발이 떨리고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이런 금단증상 때문에 계속 술을 마셔야 한다.

우리는 마약이나 술, 담배만이 習慣性和 中毒性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습관성과 중독성을 가진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中毒과 禁斷症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계속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떨어지면 어쩔 줄 몰라 할 뿐 아니라 크게 좌절하고 심지어 병적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일종의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계속 높은 자리를 찾아 뛰어들어야 한다. 이미 높은 자리에 앉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자리에 앉아봐야 그리 즐거울 것도 없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뀌거나 실력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 줄을 대기 바쁘다. 출세가 중단됨으로 인한 금단증상 탓이다.

열렬한 사랑도 중독성을 가질 수 있다. 연인들은 늘 같이 있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자주 만나다 보면 즐거움이 점점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여기에서도 限界效用遞減의 法則이 성립한다.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별 이익이 없을 때는 헤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행동한답시고 헤어지면 禁斷症狀이 온다. 자나 깨나 애인이 그립고, 보고 싶어 못 견디게 된다. 대판 싸우고 나서 헤어진 연인들이 다시금 사랑을 깨닫고 재결합한다는 얘기는 아픔만큼 성숙한다는 노래와 함께 연애 영화나 TV 드라마의 단골메뉴다.

대량생산되는 상품, 특히 便利함과 便宜함을 베풀어 주는 大量生産 商品에 대해서도 같

은 얘기를 할 수 있다. 편리함과 편안함이 처음에는 즐거움을 주지만, 일단 적응하고 나면 그 즐거움이 시들해질 뿐만 아니라 무료함과 권태의 고통이 찾아온다. 그렇다고 편리함과 편안함을 중단하면, 더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잘 쓰던 핸드폰이 없으면 몹시 짜증이 난다. 늘 보던 TV를 갑자기 중단하면 몹시 허전하다. 냉장고를 갑자기 없애버리면 얼마나 불편할까. 하다못해 늘 마시던 커피를 갑자기 못 마시게 되거나 매일 보던 신문이 갑자기 끊기면 화딱지가 난다. 물론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자동차나 전화, 컴퓨터가 없으면 불편은 고사하고 취직이나 돈벌이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사회가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편리한 상품과 편안한 생활에 일단 익숙해지면, 이것을 끊는 것은 더욱 더 고통스럽게 된다. 일종의 금단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더 便利함과 便安함에 中毒되어 버린다.<sup>(6)</sup>

어떻게 보면 편리함과 편안함의 중독은 마약중독이나 알코올중독보다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면도 있다. 마약중독자나 알코올중독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들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편리함과 편안함에 중독된 사람은 그런 치료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치료는 커녕 유혹의 손길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TV만 켜면 편리한 상품과 편안한 생활에 대한 광고가 줄을 잇는다. 편리함과 편안함의 이익은 당장 눈에 보이는데다가 돈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대량생산으로 인한 規模의 經濟 덕분에 편리함과 편안함을 위한 상품은 주위 가까운 곳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싸게 구득할 수 있다. 마치 마약중독자 주위에 항상 값싸고 질 좋은 마약이 즐비하게 놓여 있는 꼴이다.

마약중독이나 알코올중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경제학자들도 非合理的 行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마약중독자의 마약에 대한 욕구는 사회 저명인사의 출세욕이나 연인들의 붙어 있고 싶어 하는 욕구, 그리고 편리함과 편안함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욕구와 질적으로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중독이나 알코올중독에 대해서만 비합리적이라고 힐책하면서, 출세욕이나, 연인의 욕구, 그리고 편안함과 편리함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욕구에 대해서 비합리적이라고 책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마약중독이나 알코올중독이 비합리적 행위라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유는, 얻는 것에 비해서 잃는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習慣性和 中毒性이 보편적 현상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육체적 편리함과 편

(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문헌 참조: Scitovsky(1992).

안함을 위한 상품의 소비 역시 非合理的인 要素를 많이 안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런 상품을 구입해봐야 편리함이나 편안함으로 인한 즐거움이 반짝할 뿐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다(Friedman and McCabe(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禁斷症狀 때문에 편리함과 편안함을 계속 추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非合理的 行動의 전형이다.

### 3. 幸福을 위한 努力

#### 3.1. 生産技術과 生活技術

물론, 이준구 교수의 지적대로 적응과 포부형성은 상당한 정도로 “人間 本性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定策의 관점에서 그리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것에는 잘 적응하는 반면 또 어떤 것에는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쉽게 적응한다는 것은 즐거움이나 괴로움이 쉽게 사라진다는 뜻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람들이 대량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쉽게 적응하는 반면, 결혼이나 이혼에는 대체로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대체로 결혼은 행복지수를 영속적으로 높이는 반면 이혼의 후유증은 행복지수를 영속적으로 낮춘다. 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사람은 스트레스에도 잘 적응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잘 적응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옅고 一時的인 행복감을 주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깊고 持續的인 행복감을 주는 것을 최대한 추구하며, 반대로 지속적 불행감을 주는 것을 되도록 회피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각 개인은 이런 행복의 비결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幸福을 위한 個人的 努力을 대단히 강조하는 편이다. 예를 들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이익이다.<sup>(7)</sup>

그러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행복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이들은 社會的 共助 그리고 政府의 政策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국민을 진정 행복하게 하기 위한 教育政策의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이준구 교수도 位置財(혹은 地位財)의 관점에서 私教育의 문제를 지적하고 公教育의 충실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문·사회과학과 예술을 포함한 문화교육의 강화를 많이 내세운다.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인문·사회과학이 너무 위축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문헌 참조: 이정전(2002).

급과 승진의 즐거움은 일시적인 반면, 경쟁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면서 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많은 경우 일시적 행복이 지속적 불행을 상쇄하지 못한다. 경쟁에서 이겨본들 결국 행복의 면에서는 손해를 본다. 앞으로는 남기면서 뒤로는 밀지는 장사다. 資本主義 市場經濟는 개인에게 이런 밀지는 장사를 강요한다. 요즈음 책방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책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것들이다. 대체로 보면, 이런 책들은 결국 경쟁에서 이기는 요령을 가르친다. 그러나 행복의 측면에서 보면 밀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스트레스의 악영향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봐야 결국 밀지는 장사라는 점을 개인들이 깨닫는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손 쓸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직장생활이나 경제활동을 때려 집어치우는 것인데, 그러면 밥줄이 끊어진다. 직장생활이 직장인 각자에게 밀지는 장사가 아닌, 남는 장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을 완화해서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個人 차원의 일이 아니라 企業 차원의 일일 뿐만 아니라 社會的 共助가 절실히 요구되는 일이다.

물론, 경쟁을 없앨 수는 없다. 다만, 행복의 잣대로 재보아서 이익이 되는 경쟁만 허용하자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自然發生的인 競爭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인정하자 하지만 성과급제도나 경제적 인센티브제도 등 制度的으로 조장되고 고취되는 競爭에 대해서는 행복의 잣대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이다.<sup>(9)</sup> 다른 나라는 경쟁력 강화를 향해 일로 매진하는데 우리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만다는 주장도 있다. 옳은 주장이다. 그래서 社會的 共助가 필요하고 國際的 共助가 필요하다. 바로 이 점이 행복에 이르는 길에 놓인 가장 큰 장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선진국 사회에서부터 경쟁의 해악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맹목적 경제성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웰빙이 장 인기 있는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 웰빙의 바람을 타고 행복을 향한 사회적 공조리고 국제적 공조의 움직임도 점차 탄력을 받을 것이다.

#### 4. 맺는 말

幸福의 逆說에 대한 사회과학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미지근하다. 잘 해야 참고자

(9) 지위경쟁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예를 들면, 레이어드 교수가 그런다. 다음 문헌 참조: Layard(2005, chapter 10).

될 뿐, 정책적 자료나 학술적 자료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經濟學者들은 소득과 소비의 증가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경제학자들은 행복이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幸福感은 주관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어떻게 객관적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냐고 반문하면서 幸福指數라는 것부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행복에 관한 연구나 행복지수를 외면하는 태도는 객관적인 제3자가 보아도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이들이 보기에는 경제학을 포함한 社會科學보다는 自然科學이 훨씬 더 과학적이다. 과학이라고 하면 누구나 사회과학자보다는 자연과학자를 먼저 떠올린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幸福에 관한 연구는 가장 과학적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로 그 자연과학자들이 주도해 왔으며, 幸福指數도 주로 그들이 개발하고 그들이 검증한 것이다. 행복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들은 행복감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현상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한다. 사실, 지난 반세기 自然世界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듯이 인간의 主觀的 世界에 대한 과학적 탐구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다. 이제 두뇌과학자나 신경심리학자들은 특정 감정이 어떤 호르몬분비와 관계되고 여기에 두뇌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소상히 알게 되었다. 이 결과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자연세계를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었듯이 인간의 정신세계도 상당한 정도로 인위적 통제와 조작이 가능해졌다.

지난 반세기에 걸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자연과학자들이 幸福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제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너무 약해 보인다. 경제학자들이 진정 과학을 지향한다고 하면, 지난 반세기 人間의 肉體 뿐만 아니라 人間의 精神에 관해서 자연과학자들이 이루어 놓은 과학기술의 성과를 수용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인간의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서서히 버릴 때가 된 것 같다. 행복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 예를 들면 Scitovsky는 인간의 감정에 관하여 자연과학자들이 이루어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經濟學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자신도 이런 주장을 열심히 실천에 옮기고 있다.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5654

팩스: (02)871-8847

E-mail: jjrhee@snu.ac.kr

급과 승진의 즐거움은 일시적인 반면, 경쟁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면서 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많은 경우 일시적 행복이 지속적 불행을 상쇄하지 못한다. 경쟁에서 이겨본들 결국 행복의 면에서는 손해를 본다. 앞으로는 남기면서 뒤로는 밀지는 장사다. 資本主義 市場經濟는 개인에게 이런 밀지는 장사를 강요한다. 요즈음 책방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책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것들이다. 대체로 보면, 이런 책들은 결국 경쟁에서 이기는 요령을 가르친다. 그러나 행복의 측면에서 보면 밀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스트레스의 악영향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보야 결국 밀지는 장사라는 점을 개인들이 깨닫는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손 쓸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직장생활이나 경제활동을 때려 집어치우는 것인데, 그러면 밥줄이 끊어진다. 직장생활이 직장인 각자에게 밀지는 장사가 아닌, 남는 장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을 완화해서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個人 차원의 일이 아니라 企業 차원의 일일 뿐만 아니라 社會的 共助가 절실히 요구되는 일이다.

물론, 경쟁을 없앨 수는 없다. 다만, 행복의 잣대로 재보아서 이익이 되는 경쟁만 허용하자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自然發生的인 競爭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인정하자. 하지만 성과급제도나 경제적 인센티브제도 등 制度的으로 조장되고 고취되는 競爭에 대해서는 행복의 잣대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이다.<sup>(9)</sup> 다른 나라는 경쟁력 강화를 향해 일로 매진하는데 우리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망하고 만다는 주장도 있다. 옳은 주장이다. 그래서 社會的 共助가 필요하고 國際的 共助가 필요하다. 바로 이 점이 행복에 이르는 길에 놓인 가장 큰 장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선진국 사회에서부터 경쟁의 해악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맹목적 경제성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웰빙이 가장 인기 있는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 웰빙의 바람을 타고 행복을 향한 사회적 공조 그리고 국제적 공조의 움직임도 점차 탄력을 받을 것이다.

#### 4. 맺 는 말

幸福의 逆說에 대한 사회과학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미지근하다. 잘 해야 참고자료나

(9) 지위경쟁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예를 들면, 레이어드 교수가 그런 교수다. 다음 문헌 참조: Layard(2005, chapter 10).



될 뿐, 정책적 자료나 학술적 자료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經濟學者들은 소득과 소비의 증가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경제학자들은 행복이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幸福感은 주관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어떻게 객관적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냐고 반문하면서 幸福指數라는 것부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행복에 관한 연구나 행복지수를 외면하는 태도는 객관적인 제3자가 보아도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이들이 보기에는 경제학을 포함한 社會科學보다는 自然科學이 훨씬 더 과학적이다. 과학이라고 하면 누구나 사회과학자보다는 자연과학자를 먼저 떠올린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幸福에 관한 연구는 가장 과학적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로 그 자연과학자들이 주도해 왔으며, 幸福指數도 주로 그들이 개발하고 그들이 검증한 것이다. 행복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들은 행복감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현상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한다. 사실, 지난 반세기 自然世界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듯이 인간의 主觀的 世界에 대한 과학적 탐구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다. 이제 두뇌과학자나 신경심리학자들은 특정 감정이 어떤 호르몬분비와 관계되고 여기에 두뇌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소상히 알게 되었다. 이 결과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자연세계를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었듯이 인간의 정신세계도 상당한 정도로 인위적 통제와 조작이 가능해졌다.

지난 반세기에 걸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자연과학자들이 幸福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제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너무 약해 보인다. 경제학자들이 진정 과학을 지향한다고 하면, 지난 반세기 人間의 肉體 뿐만 아니라 人間의 精神에 관해서 자연과학자들이 이루어 놓은 과학기술의 성과를 수용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인간의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서서히 버릴 때가 된 것 같다. 행복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 예를 들면 Scitovsky는 인간의 감정에 관하여 자연과학자들이 이루어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經濟學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자신도 이런 주장을 열심히 실천에 옮기고 있다.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5654

팩스: (02)871-8847

E-mail: jjrhee@snu.ac.kr

參考文獻

- Bruni, L., and P. L. Porta(eds.)(2005): *Economics and Happi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asterlin, R. A.(ed.)(2002): *Happiness and Economics*, Cheltenham, U. K., Edward Elgar Publishing Inc.
- \_\_\_\_\_ (2005): “Building a Better Theory of Well-Being,” in L. Bruni, and P. L. Porta(eds.)(2005), *Economics and Happi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k, R. H.(1999): *Luxury Fev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Frey, S., and A. Stutzer(2002): *Happiness and Econom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iedman, J., and A. McCabe(2002): “Preferences of Happiness?,” in R. A. Easterlin(ed.), *Happiness and Economics*, Cheltenham, U. K., Edward Elgar Publishing Inc.
- Lane, R. E.(2000): *The Loss of Happiness in Market Democrac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ayard, R.(2005): *Happiness*, New York, The Penguin Press.
- Scitovsky, T.(1992): *The Joyless Econo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이정전(2002):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서울, 한길사.
- 이준구(2005): “행복의 경제학: 정책적 함의,” 『경제논집』, 44. 2,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